

건축문화 RANG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7.02.08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남남도건축사회 전북북도건축사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 정명철, 박용욱, 전병갑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광주건축사회, 청년실업해소 위한 취업매칭데이 행사 가져
순천대 건축학과와 건축실무교육 협정식 및 건축도서 기증식도 진행

아주건설 담양 사옥

전남건축사회, 올해도 전남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서
14억 원의 사업비, 140여 가구에 추진

2016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작품

전남 목포시, 근대 건축 자산 일제조사 실시
역사적 보전가치, 관광상품성 좋은 문화유산 발굴

Editorial 건축사와 설계자

전북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14일 오후 4시 20분, 전북 완산구 오펀리스 5층 컨벤션홀

전북건축사회원 6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완주

전북도,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70%로 확대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57%까지 확보할 계획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호남지역 패시브하우스의 선구자 박병열 건축사와의 만남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 성료

사랑에서 _ 스물일곱 번째
로맨스와 불륜

借景 차경, 자연의 경치를 빌리다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Editorial

건축사와 설계자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안에서 건축법 제23조 제2항을 명시하여 설계도서 이행주체를 "건축사"에서 "설계자"로 변경하였다.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①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였음에도 ②항에 가서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이 문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①항에 의하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라고 하였지만, ②항에서는 "건축사" 명칭을 빼고 갑자기 "설계자"라고 한 것도 모순이다. 2016년도 12월 30일 고시한 내용도 설계도서 이행주체를 "건축사"로 명시하였으면, ②항 규정도 건축사로 명명해야 하고, "설계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명분은 설계도서 작성기준 이행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고 하나 건축사면허가 아닌 자격증이 없거나 미달된 사람들이 건축설계하면 무조건 "설계자"라고 명시하여 건축사의 자격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설계·감리 겸업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건축사업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까지 하였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대상 중, 주거용 건축물은 661㎡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495㎡ 초과에서, 85㎡ 초과 건축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실상 신고대상 건축물을 뺀, 전 건축물에 까지 확대하여 건설업자들의 영역이 확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건축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건축물 설계·감리까지 기웃거리려는 건설업자들의 지속적인 개입이 기존 건축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 설계상에서 "설계자"라는 명칭보다 모든 건축법 문구에 "건축사" 명칭이 자리매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자"라는 단어는 누구나 그렇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원호 논설위원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75-3 / 대지면적 : 822.00㎡ / 건축면적 : 305.02㎡ / 연면적 : 362.53㎡ / 건폐율 : 37.11% / 용적율 : 44.10%
구조 : 조적조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층수 : 지상 2층

광주건축사회, 청년실업해소 위한 취업매칭데이 행사 가져 순천대 건축학부와 건축실무교육 협정식 및 건축도서 기증식도 진행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2월 3일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제1기 건축실무아카데미 결과보고회 및 취업매칭데이' 행사를 열고 교육수료자 15명에게 수료증 전달과 졸업예정자와 구인 건축사사무소 간의 취업매칭을 지원했다.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는 광주 전남권 소재 대학 건축전공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우수 교육생에게 취업을 추천하여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 지역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1기(학장 신정철 건축사/부학장 윤양현 건축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순천대학교 건축학부(학부장 이재홍 교수)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진행했으며, 이날 결과보고회 및 취업매칭데이 행사는 교육생들이 실무교육을 통한 결과물을 발표하면, 건축사사무소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평가하고 공개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지원자들 모두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 건축인 양성 및 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식에 앞서 광주건축사회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와 건축실무 공동교육 협정을 맺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건축도서물품도 기증했다.(관련 기획지면 9면)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박대운 건축사 / 대운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11번길 6 (풍암동), 2층

• 전입

- 김영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담 /
광주 서구 마로로 67 (마로동, 지웃컴퍼니), 3층

• 폐업

- 천도길 건축사 / 신일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ESSE /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32번길 3-17, 201호(쌍촌동)

• 결혼

- 최경락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장녀결혼 - 02월 25일(토) 낮 12시
보정성당(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73번길 24)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장녀 결혼 - 02월 25일(토)
낮 12시 50분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서구 풍서자로 263)

• 부고

- 류연창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림건축 / 빙모상 - 01월 16일(월)

- 김희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 모친상 - 01월 17일(화)

- 이금신 건축사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1월 18일(수)

- 김현중 건축사 / 미주 건축사사무소 / 부인상 - 01월 19일(목)

내진설계를 위한 무료 방문상담 서비스

강화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설계대상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저층건축물까지 확대



설계기준

2016년 5월 27일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건축구조기준 전면 개정
(2016.05.31)

• 공통 적용기준 제정

• 비구조체(간막이벽체, 유리 등)
내진설계기준 마련

2017년 의무화 시행 이후

• 구조업무 처리시간 증가
2층 이상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로
많은 프로젝트가 몰려 외주처리 시간이 증가합니다.

• 구조 외주처리 비용상승
내진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외주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설계업무의 효율감소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된 디자인이 어렵고,
설계변경의 외주처리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이더스아키텍트의
무료 방문상담을 신청하셔서

내진설계와 관련된 의문을 해결하고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비하세요!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박정준 031 789 4047



방문상담을 신청하신 분들께
최신 건축구조기준이 반영된
구조핸드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midasArchi.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건축사회, 2017년도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 동구 신양파크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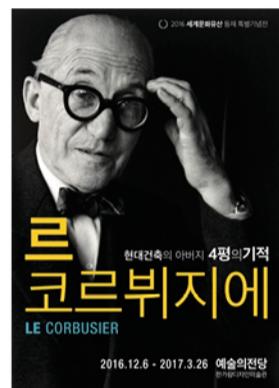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2017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오는 3월 7일 오전 10시 동구 신양파크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으로 회칙개정 건과 2016년 일반·특별회계 결산의 건, 2017년 일반·특별회계 예산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사회 관계자는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제30회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르꼬르뷔지에 건축전 등 건축문화답사 참가자 모집

오는 3월 10일까지 선착순 80인 모집, 회원사 및 사무소 직원, 교수, 학생 등 참가대상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역 건축인들에게 우수 건축문화의식 함양과 건축문화 답사를 통한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르꼬르뷔지에 건축전 및 우수 건축물 답사를 추진한다.

일정은 오는 3월 18일(토) 오전 8시 광주역을 출발하여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르꼬르뷔지에 건축전과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상 대상을 수상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답사하고 오후 10시에 광주역 도착 일정이다.

참가대상은 회원사 및 사무소 직원,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 등이며 선착순 80인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당 4만 5천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광주건축사회로 전화(062-521-0025~6) 접수 후,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광주건축사회, 2017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감사선거 후보로 (주)승 건축사사무소 문강욱 건축사가 단독 출마...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오는 3월 7일 제30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1인을 선출하는 선거에 (주)승 건축사사무소 문강욱 건축사가 단독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문강욱 건축사는 1966년 생으로 1991년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12월에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2000년 10월 입회했다.

입회 후, 사회 각종 위원회 위원활동과 2015년 사회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국제로타리3710

지구 입석로타리클럽회장 역임과 복구 건축위원회 위원 활동 등 다수 사회활동도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법인 서정, 광주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정호령 세무사

"국세청 22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 도와 드립니다."

- ▣ 정호령 대표는 - 제49회 세무사 시험 합격, 광주지방국세청 22년 근무
- 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위촉
- 광주광역시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위촉
- 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 현재 세무법인 서정은 상무점 외 5개 지점 운영 중

▶ 취급업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조세불복 / 세무조사조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일곡동, 광산빌딩 5층)
Tel. 062-575-3105~7 / Fax. 062-575-3109 / E-mail : ho-rjung@hanmail.net

대지위치 : 전라남도 삼서면 수양리 112-6번지외1필지 / 대지면적 : 1,935.0㎡ / 건축면적 : 297.86㎡ / 연면적 : 357.85㎡ / 건폐율 : 15.39% / 용적율 : 15.39% / 용도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借景 차경. 자연의 경치를 빌리다

정관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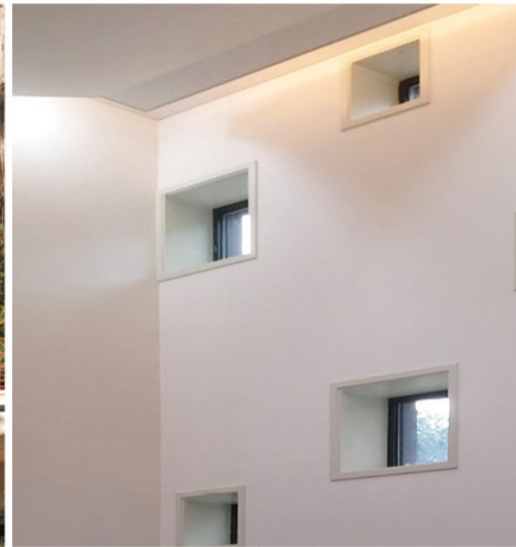


2016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우수작(주거부문) | 상사면 Y씨 주택

정재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461-17 / 대지면적 : 826.00㎡ / 건축면적 : 143.32㎡ / 연면적 : 236.05㎡ / 건폐율 : 17.35% / 용적률 : 21.40%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용도 : 단독주택 / 층수 : 지상2층
외부재료 : 노출콘크리트, THK 0.7 징크, THK 24 로이복층유리, 고벽돌 치장쌓기



전남건축사회, 2017년도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7일 오후 1시 30분, 여수 디오션리조트 3층 벨라스타 홀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목)는 2017년도 제51회 정기총회를 오는 3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 3층 벨라스타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2016년 회계 결산과 2017년 예산 승인,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도회 관계자는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이번 정기총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남건축사회, 올해도 전라남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서

'행복동지사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14억 원의 사업비, 140여 가구에 추진



△ 전남건축사회는 지난해 4월 15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 올해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행복동지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고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행복동지사업'은 전라남도 건축사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0여 가구에 추진한다.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 예산 확보와 기업체·단체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등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독립유공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원액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1천500만 원 내외, 차상위계층 1천만 원 내외다.

붕괴 우려가 있어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특별한 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150% 범위까지 확대 지원해 도민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2월 말까지 시군 추천을 받아 3월부터 도, 시군, 주택건설협회 등 건축 전문가와 합동으로 주택노후도, 시급성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보수 일정을 협의, 동절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약 11억 원의 사업비와 전라남도건축사회,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의 재능을 기부 받아 112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

행복동지사업은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에서 벗어나 주택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시설과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 안전과 생활 편의를 갖춰주기 위한 실질적 주거복지사업이다.

전남 여수시, '건축 활발' 인·허가 꾸준히 증가

2014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 관광객으로 인한 숙박시설 인·허가 증가 한몫

전라남도 여수시의 건축경기가 활발하다. 지난 2014년 이후 건축 인·허가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4년 1,331건, 2015년 1,431건, 2016년 1,543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증가했다.

2년 연속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전국에서 여수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숙박시설과 같은 상업시설의 건축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시설 인허가는 지난 2015년 53건(연면적 7만2865㎡)에서 2016년 80건(연면적 20만4744㎡)로 크게 증가했다.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대규모 숙박시설도 6건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숙박시설과 같은 건축 인·허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여건이 향상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 근대 건축 자산 일제조사 실시

역사적 보존가치, 관광상품성 좋은 문화유산 발굴

전라남도 목포시가 지난 오는 2월 17일까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목포지역 대학생 20명을 고용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근대건축물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대학생들과 함께 역사적 보존가치와 관광 상품성이 좋은 근대문화유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이다.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한 후 전국 3대항 6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유달동 및 선창 주변을 중심으로 각종 근대 시설물들이 건립됐다.

이번 일제조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시는 이번 조사에서 새로 발굴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자산들에 대해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대건축물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계기로 지역의 근대유산과 관광사업을 접목시키는 '지역 우수건축자산 시범 활용사업'의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최석민 건축사 / 세명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정성군 장성읍 만풍로 105
- 이 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 전남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13-6, 2층(학동)

• 전출

- 김영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담 / 광주 서구 마로로67, 지웃컴퍼니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마룬리 461-64번지 / 대지면적 : 826.60㎡ / 건축면적 : 202.14㎡ / 연면적 : 393.67㎡ / 건폐율 : 24.47% / 용적률 : 37.45%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외부재료 : 송판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패널, 치장벽돌

2016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가작(주거부문) | 상사 화수목마을 L씨 단독주택

김용민 건축사 / 이엠 건축사사무소



바다회집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49-9번지 / 대지면적 : 1,289.00㎡ / 건축면적 : 408.84㎡ / 연면적 : 398.81㎡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용도 : 근린생활시설
층수 : 지상 1층 / 외부재료 : 고벽돌치장쌓기, 접합강판거울접기



전북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앞서 윤리교육 진행

오는 3월 14일 오후 4시 20분(윤리 3시), 전북 완산구 오펀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는 오는 3월 14일 오후 4시 20분 전북 완산구 오펀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2017년도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201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기타사항 등 4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석정훈 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건축사실무교육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국제교류 방문단 모집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방문 예정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오는 2월 15일까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국제교류 방문단을 모집한다.

방문단은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개인부담원칙으로 1인당 약 80만원

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중 40%는 도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와 2009년부터 국제교류협약을 맺고 매년마다 교차방문 하는 형식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지난해 9월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한 감찰설계행업협회 회원들

한국감정원 2016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안내

「건축법」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 시 참고 가능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용도	공사비(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아파트	1,406,200
	연립주택	1,933,500
	다세대 주택	1,197,500
소규모 건축물	다가구 주택	1,375,500
	근린생활시설	1,116,000
	창고	621,800
	공장	659,200

※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기준임)
※ 부칙 : 2017년 2월 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북건축사회원 6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완주

원광대 건축학과 윤충렬 교수 정년퇴임 기념으로 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난 1월 3일 전북건축사회원 6인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4,130m) 트레킹을 완주했다.

이번 트레킹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충렬 교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진행되었는데 참여한 전북지역 건축사와 교수는 다음과 같다.

사진 좌측부터 김문호 건축사(이륙 건축사사무소), 조기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초가건축), 최진호 건축사(우창 건축사사무소), 윤충렬 교수(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소광호 교수(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백우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백현), 홍영식 건축사(하늘 건축사사무소), 김유천 건축사(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시행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을 2017년 50%~100%로 확대

전라북도 익산시가 올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강화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확대는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을 비롯해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을 2017년에 50%~100%로 확대 실시한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 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에 대한 감면으로 재난 시 안전에 취약한 대부분의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민들은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전북도,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70%로 확대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57%까지 확보할 계획

전라북도가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0%로 끌어올린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57%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진 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내진율을 70%까지 확보하고, 도내 지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활용되는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을 전국 평균(84.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10개 경보시설을 확충한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박복렬 건축사 / (유)도성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송여울2길 154(진북동)
- 심금용 건축사 / 비타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중앙로 13 47-1(남중동)

• **전입**

- 정종성 건축사 / 미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광곡1길 10-3(구이면)

• **변경(상호)**

- 장종우 건축사 / 장인 건축사사무소 → (주)장인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정태조 건축사 / 헤세드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9(삼례리)
- 송일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담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9(삼례리)
- 서문용진 건축사 / (유)수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 덕진 동부대로 1124(송천동2가)
- 김만희 건축사 / 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동서로 7-13(낙평리)
- 최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 전북 전주 완산 향교길 84(교동)
- 박용규 건축사 / 소망 건축사사무소 /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40(장기리)

• **부고**

- 추연철 건축사 / 추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1월 27일(금)
- 고시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플라넷 / 부친상 - 01월 27일(금)
- 반진호 건축사 /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2월 02일(수)
- 오신철 건축사 / 가람설계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2월 08일(수)



대지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903-1 / 대지면적: 828.20㎡ / 건축면적: 463.88㎡ / 연면적: 1,566.51㎡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교육연구시설 / 층수: 지상 4층 / 외부재료: NT패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접합스텐발색강판, 마천석물갈기

군산시 평생학습관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예향 전남의 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선도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며 상징성을 가진 예술성이 살아 있는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함

심사위원 : 김정곤, 이영범, 이관석, 김경원, 최윤경, 김인호, 이 한, 김현선, 오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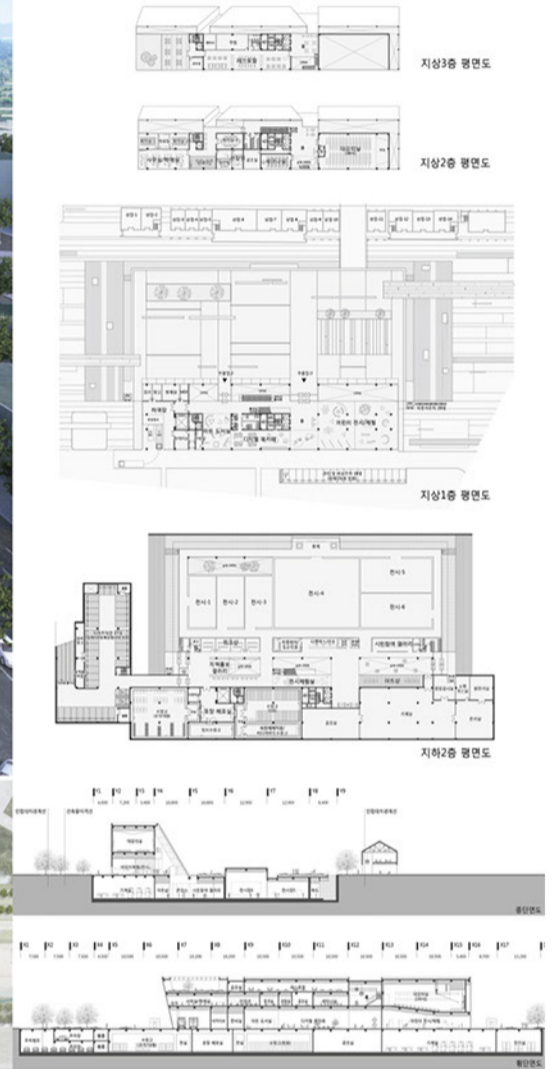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27 외 9필지
- 연 면 적 : 12,000㎡ (±5%이내 조정가능)
- 대지면적 : 17,465㎡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 공 사 비 : 35,937백만원



- 당선작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 에스아이 건축사사무소
- 우수작 :** (주)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
+ (주)에스애피 건축사사무소
- * 자료 미제출
- 가 작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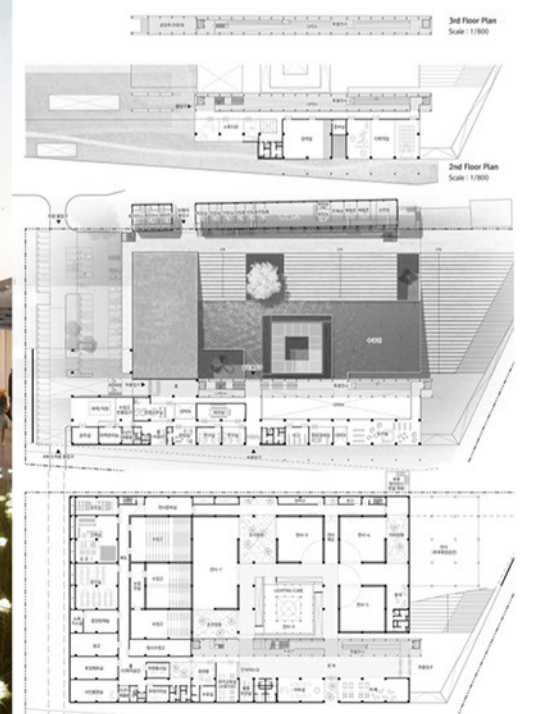
당선작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길종일 건축사
+ (주)에스아이 건축사사무소 고성용 건축사



가 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박재영 건축사, 최재영 외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임진우 건축사 외



호남지역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선구자 박병열 건축사와의 만남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이 국가정책과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남 광양의 박병열 건축사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국제공인 독일 PHI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 자격을 취득하고, 호남지역에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확산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시공자·교수·공무원·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패시브하우스 전남포럼'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월 1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설계입문, 학업 등)

대학원 재학 중 처음으로 '지원성(affordance)'이라는 개념을 접한 후,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인간 행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건축사가 되어 바른 생각과 성실한 자세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인류에 복을 짓는 일이 되겠지만 반대로 소홀히 하여 나쁜 공간을 만들어 내면 그만큼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건축사라는 직업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동시에 건축사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한국전통건축과 원시마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친미시대를 겪으면서 수 천년간 내려온 선조들의 건축적 지혜가 단절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현대 건축에 우리의 얼을 담아 그 끊어진 맥락을 잇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전통한옥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루나 마당, 골목 등 공간에 숨어있는 우리의 토종 유전자를 복원하고자 건축사가 된 이후에도 고건축 답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선조들의 고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축재료가 풍부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으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집, 곰팡이 없이 보송보송하고 쾌적한 집을 짓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 하였던 상생의 정신을 실천한 많은 선배 건축인의 발자취에 감동하였습니다. 집의 본질이 무엇인지, 건축이 가진 궁극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건축기술인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이 기술을 탄생시킨 독일의 건축철학이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지구공생의 가치와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을 위한 이기적 건축이 아닌 인간과 지구환경이 함께 행복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축'이 저의 길이자 건축인의 공통된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품고 있는 자원과 자정능력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단지 작품활동이라 일컬으며 하루하루 쏟아내는 건축프로젝트가 지구를 아프게 하고 결국 인류를 병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공부와 건축 활동을 병행해가는 중입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의 특성상 시공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공정별 기술자들과 소통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웠을 때는 패시브하우스를 2013년 처음 공부했을 때 건축 물리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디자인만을 쫓아왔던 그간의 건축 활동이 반성되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1호를 설계하셨던 고 정기용 건축가입니다. 혼신을 다했던 무주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인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고민하여야 하는지 가르쳐주었고 건물을 설계하기 이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횡단하며 땅과, 세상과, 관습과 싸우기도 해야 한다는 폭넓은 안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2015년에는 순천 선암사와 흥선사에서, 이듬해인 2016년에는 순천의 외구교회에서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벽도 뛰어넘는 패시브하우스의 매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기타 사회활동에 대해?

좋은 집에 대한 고민을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해 순천과 여수 평생교육원에서 '좋은집짓기_우리동네 건축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패시브하우스 전문가 그룹을 확산하기 위하여 건축사, 시공자, 교수, 공무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패시브하우스 전남포럼'을 결성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 /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박병열 건축사



순천대 건축학부 학생들과 패시브하우스 답사



2014년 국제 패시브하우스 심포지엄 개최

향후 계획 및 포부

현재 저의 가장 큰 꿈은 한국적 정서가 담긴 정통 패시브하우스를 경제적인 금액으로 구현하여 주거약자층에게 널리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건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4월에 있을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11월에 계획 중인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 등 각종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 성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은 지난 1월 10일부터 4주 과정으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학부장 이재홍 교수) 4, 5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제 1기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학장 신정철 건축사/부학장 윤양현 건축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건축설계실무 및 인·허가 업무관련 실무와 건축공사 감리실무, 설계프로젝트 완성형 교육, 구조 관련 프로그램 및 BIM프로그램 교육 등 학생들이 건축사사무소 취업 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실질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2월 3일과 4일에는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결과보고회 및 채용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행사내용이다.



지난 1월 10일 순천대학교에서 개강식이 열렸다. 신정철 학장(주)건축사사무소 에디그룹)의 개회인사말 및 윤리교육(사진 좌측)에 이어 본격적인 강연이 진행됐다.(사진 우측)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홍 학부장은 이번 아카데미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한 광주건축사회에 감사함을 표했으며(사진 좌측), 강사를 대표하여 정관성 건축사가 그간의 진행경과를 발표했다.(사진 우측)



이번 아카데미에서 정관성(주)건축사사무소 자경제), 최치훈(건축사사무소 밀월), 김은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아도) 회원이 실무강연을 진행했다.(사진 좌측) 이와 함께 구조프로그램 마이더스 이젠을 사용한 실무교육 초청강연도 열렸다.(사진 우측)



이날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과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홍 학부장은 건축실무 공동교육 협약서에 서명하고(사진 좌측), 앞으로 건축실무 교육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사진 우측)하기로 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과 강사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임카페를 만들어(사진 좌측), 설계 프로젝트 과제에 대한 크리틱을 주고 받으며 소통을 해나갔다.(사진 우측)



아카데미 수강생 중 15명은 4주간의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며(사진 좌측), 5인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날 윤양현 부학장(이조 건축사사무소)은 발표물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사진 우측)



2월 3일,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개별적으로 4주간 진행한 설계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으며(사진 좌측), 이 자리에는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인력채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들이 참여했다.(사진 우측)



발표회에 이어 회장 명의로 아카데미 교육과정수료자 11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되었으며, 마이더스이젠 교육과정을 이수한 12명에게는 이수증이 수여됐다.(사진 좌측) 이와 함께 발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2인(5학년 이주희/4학년 김정아)에게 상장이 수여됐다.(사진 우측)



정명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반기에도 아카데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좌측) 신정철 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참여 강사와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사진 우측)



발표회와 시상식에 이어 취업매칭데이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참가자 중 졸업예정자 6인에 대한 공개 면접(사진 좌측)이 열렸으며, 7개 건축사사무소 대표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평가를 하고 채용의사를 밝혔다.(사진 우측)

<지역경제활성화 공익 캠페인>

설계에서부터 지역가전제품 사양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우리 지역 대기업의 생산라인 이전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 가전기업의 자생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제품군 : 오븐, 주방TV폰, 렌지후드, 가스쿡탑, 홈네트워크, 자동점등기, 빨래건조기, 일괄소등·가스차단기, TV 등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가 함께합니다.

사랑에서 _ 스물일곱 번째

로맨스와 불륜

얼마 전에 예술가를 자녀로 둔 건축주의 의뢰로 설계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감각도 남달랐고, 제시하는 조건들도 비교적 까다로웠다. 속으로 '제법 괜찮은 건축주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 하지만 결국 인연을 맺지는 못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다른 사무소보다 설계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돌아서버린 것이다. 우리 업계에서는 비밀비재한 일이지만 유독 입맛이 씹쓸했다. 자녀의 혼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작품을 두고도 가격을 흥정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도 싸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라고 가르칠까? 문득 '부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떠올라, 오지랖 넓게도 나보다는 그 녀석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바야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넘쳐나는 시국이다.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으랴만, 지금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에서는 추잡한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행위들이 연일 보도되고, 픽션보다 더 픽션 같은 추문들로 인해 공인지 생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부인과 모르쇠로 버티거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성이었다고 역겹게 변명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역시도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러도 당당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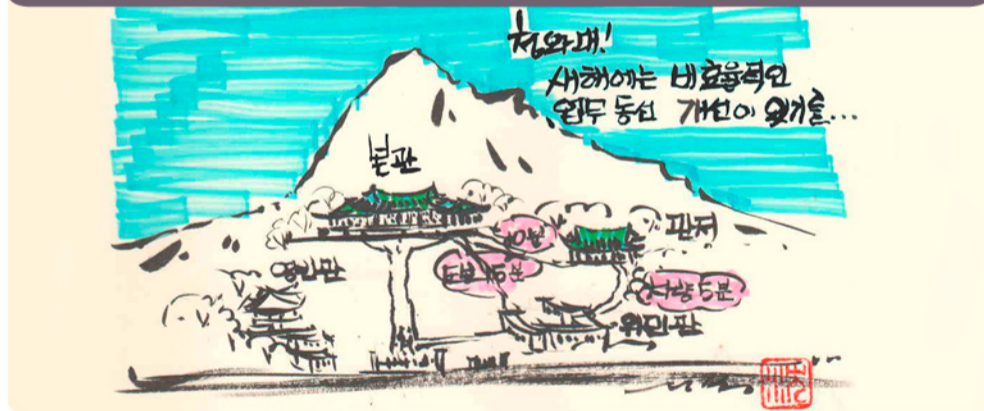
사실, 처음엔 재밌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 놀랍기도 했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었으며, 적당한 선에서 덮여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설마설마하며 지켜보라니 분노가 치밀었고, 처벌할 증거가 밝혀질 때면 통쾌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울과 좌절 그리고 걱정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굽신거리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혈값에 지식과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흠수저의 운명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기주의와 편법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누구더러 잘못을 나무라고, 양심을 지키라고 타이를 수 있을 것인가! 윗물이 그처럼 썩은 구정물 천지일진데 어찌 아랫물이 맑아지길 기대할 수 있던 말인가!

하지만 이제는 마냥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역사를 보더라도 간신이 있었던 반면에 충신도 있었다. 매국노는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나라도 팔고 민족도 팔고 양심도 팔았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목숨까지 바쳤던 이름 없는 애국자도 많았다. 주위를 둘러보면 기회주의자와 변절자도 많지만, 부귀영화보다 정의와 소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걸까? 건축사로서의 초심은 잃지 않고 있을까?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다하고 있을까? 남들이 불륜이라는데 나 홀로 로맨스라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무주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회적 책무와 소신을 잃지 않으셨던, 말하는 건축가의 목소리를 느끼려...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법 시행규칙(17.02.03) 공포 법/령/정/보

○ 주요내용

-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안 제9조의2 신설)
1)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를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와 동일하게 정함.
2)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내용,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 등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1)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2)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함.
다. 업무제한 대상 건축관계자 등의 공개(안 제19조의5 신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건축법 시행령 공포[시행 2017.2.4.] [2017.2.3.공포]

○ 주요내용

-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신설)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견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안 제10조의3 신설)
1)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서 및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함.
2)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안 제18조의2 신설)
공사시공자가 공사의 공정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고, 기초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붕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구조공사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도록 함.
라.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안 제19조의3 신설)
1)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2)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의 피해 규모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로 정함.
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32조제2항제1호)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되,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으로 유지함.
바.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 추가(안 별표 1 제26호라목 신설, 안 별표 1 제28호나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물화장시설 등은 건축물의 용도 중 묘지 관련 시설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각각 추가함.
사. 현장관리인의 공사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제2호라목 신설)
현장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정명환
부편집인: 강동영,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이종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하단광고: 350,000원
하단1/2광고: 200,000원
구독료: 20,000원/1년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아기엠: 350,000원
세무법인 서정: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쫄쫄..... 요즘 것들이란.”

이보라 심리상담사
전라북도 전주시

“쫄쫄..... 요즘 것들이란.”
우스갯소리로 이집트 고대문자로도 쓰여 있다는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일컬어 하는 말인 듯하다.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 어느덧 나도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어른이 되었다.
나의 직업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공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런 직업을 가진 내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은 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는 그때 어떠했는지 내 어린 시절을 차근차근 생각해보게 되었다.
곰곰이 되돌아 본 나는 과연 요즘 아이들을 요즘 것들 이라고 할 만큼 성숙했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요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초등학교시절 교회 같이 가자고 전도하시던 선생님께,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라며 말하던 되바라진 아이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빠져 CD, 테이프, 포스터에 잡지 모으느라 온 용돈을 털어 부은 것은 물론 공연마다 쫓아다니고, 오빠들 선물 보낸다며 알바까지 하던 아이였다.
그랬던 내가 어른이 되었고 그 사이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오늘날 내가 만들어졌다.
‘20살의 나’, ‘25살의 나’, ‘30살의 나’를 비교해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도 마음도 많이 성숙해졌다. 결혼을 한 요즘은 더욱 그렇다.
내가 혀를 찼던 그 아이들은 요즘 것들이라 되바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시기의 모습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 시기엔 되바라져야 하고, 어른들의 말에 사사건건 대들어야 하며, 반항하고 또 반항해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다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우리 때와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우리 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되었기에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성숙함을 요구하는 건 과도한 욕심이었고, 다른 세대를 살아온 그들이 표현방법이 다른 건 당연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보니 아이들에게 더 잘 공감해줄 수 있게 되었다.
어른이 어른으로서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면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알지 못하는 그저 미성숙한 아이일 뿐인 것이다.
어쩌겠는가. 어른이 이해해야지. 유행가의 가사처럼 그들은 늙어 본적 없지만, 나는 젊어 봤으니 말이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개심사

이름만 들어도 욕 죄없던 마음이 사글어 드는 듯하고 지금껏 지은 죄가 사면될 것 같은 곳이다	피땀한 구들도 없이 몇 백년을 버텨온 인고의 세월과 죽이 갈라진 기둥의 틈새사이로 알렁이고
개심사로 가는 길은 어머님 적 먹으러 고향집에 돌아가는 것만 같다	대웅전을 드나드는 손길마다 부처님의 기도가 깃들었고 이슬대는 속세의 바람은 계면찍은 알골로 뒤돌아서고
저수지 길을 돌아 솔밭 사이 오솔길과 돌계단을 오르며 눈물겨운 어떤 사연이 금방이라도 뒤쳐나와 막아줄 것만 같다	민초들의 소망을 드리운 범종소리는 산자락을 휘감는 선하디 선한 선홍로 개심사의 맑이 맑은 공기속을 흐른다
천년 세월의 무게를 지탱하며 의연하게 서 있는 종가라 간절한 소망을 담은 타종소리가 해맑은 빛깔로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책 소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쿤데라 / 이재룡 옮김 / 민음사 / 2009. 12. 24.

최금주 직장인

경상남도 거제시



20세기 체코의 프라하, 젊은 남녀 주인공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물음,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인간이란 존재는 참을 수 없는 가볍고 초라한가?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유한한 삶을 버티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되는 존재인가? 질문에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처음 밀란 쿤데라의 이 소설을 읽었을 때의 강렬한 느낌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1968년 체코의 사회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자유주의를 향한 그 짧은 시간 [프라하의 봄]을 시대적 배경으로 테레자와 토마시, 사비나와 프란츠, 네 주인공들의 다양한 삶과 사랑, 이성과 감정, 자유와 혼돈,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어떻게 서로 공존하는지, 그들은 체코의 격변한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 혼돈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두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대학교수 프란츠는 토마시의 애인이자 친구였던 사비나를 사랑하게 되지만, 사비나의 자유로운 영혼과 가벼움으로 대변되는 삶은 프란츠와 공존될 수 없기에 사비나는 그를 떠난다. 방황하던 프란츠는 캄보디아 대장정을 통해 현실 속에서 존재의 확신을 찾지만 결국 고향의 습격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들의 다양한 삶과 사랑에 대한 해석이 아닌, 1968년 소련의 침공으로 얼룩진 프라하처럼 한 인간의 존재가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얼마나 가벼운 것일처럼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2017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즈음, 지난 20세기의 소설이 우연히 다시 생각나게 될 줄은, [프라하의 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 아직도 추운 겨울, 그러나 돌아오는 주말에는 벌써 입춘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유와 민주가 당연한 21세기, 머나먼 동양에서 또 다른 '프라하의 봄'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음이, 그 가볍고도 무거운 존재가 참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

프라하의 외과 의사 토마시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으로 삶과 사랑을 마주한다. 그는 우연히 시골마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테레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는데, 테레자는 그와의 사랑을 전부로 여기며 가벼움과 대비되는 무거움으로 삶을 대한다. 가벼움과 무거움

내손 안의 스마트감리앱

국내최초 국내유일 공사감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키엠

201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반영!!

PDF매뉴얼 다운로드
www.archim.kr

facebook 아키엠

youtube 아키엠